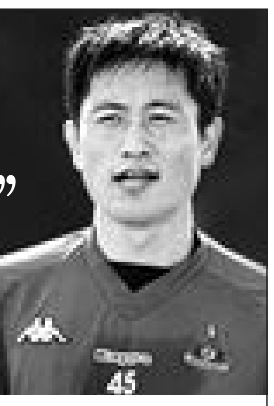
# “이적은 12월 이후에나…”

## 이영표, AS로마行 언급 신중



“지금 이적을 얘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12월 이후에나 거론할 문제다”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벤치를 지켰던 이영표(29·토트햄)가 41일간의 공백을 깨고 마침내 그라운드에 나선 소감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이적설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 41일만에 복귀…풀타임 소화 토트햄 칼링컵 8강행 견인

이영표는 9일(한국시간) 치러진 2006~2007 칼링컵 16강전 포트 베일전(3부리그)에 선발출전해 연장전까지 120분을 소화하면서 팀의 3-1 역전승에 기여한 뒤 “부상 부위의 상태가 좋아졌다. 완전히 치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며 “역전승으로 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기뻐했다.

이날 왼쪽 윙백으로 선발출전한 이영표는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해 공격에 가담하고 전반 13분께 강한 중거리슛을 날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후반에 오른쪽 발목을 만지고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여 아직 부상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영표는 특히 AS로마 이적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그 문제는 12월이 넘어서 이야기할 사안”이라며 “지금 그런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이영표와 일문일답.

-오랜만에 경기에 나왔는데.

▲컨디션은 괜찮다. 부상 부위(오른쪽 발목)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 5주 정도 쉬었는 데 체력적으로는 아직 완전치 못하다.

-경기 중 오른쪽 발목을 약간 절룩이는 것 같았는 데.

▲완전히 치료된 상태가 아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경기에 나서야 할 것 같다.

-AS로마 이적설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데 진척이 있나.

▲그 부분은 이적시장이 열리는 12월이 넘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그전까지 이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당치 않다. 12월 이후에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 설기현이 뛰는 레딩과 맞붙게 돼있다 출전 가능성은.

▲출전 여부는 감독에게 달려있다.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고 싶어하는 심정은 똑같다.

누가 뛰든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레딩도 잘하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최근 영국을 방문한 베어벡 감독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

▲몸 상태는 물론 대표팀 일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사적인 얘기도 했다.

# 주말에 한판 붙자

## 단판 승부 PO행 결정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그라운드의 전쟁이 펼쳐진다.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정규리그가 지난 5일 막을 내린 가운데 챔피언 결정전 티켓 두 장을 놓고 올 시즌 리그를 호령했던 4룡(龍)이 이번 주말 단판 승부를 벌인다.

전기리그 우승팀 성남 일화와 전·후기 통합순위 4위 FC 서울이 11일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맞붙고 12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후기리그 우승팀 수원 삼성과 통합순위 2위 포항 스틸러스가 맞대결을 벌인다.

### 성남-서울: 컴퓨터 지략 vs 뚝심의 공격축구

▲성남-서울=양팀 킬러들의 대결이 관건이다. 우선 신·구 토종 골잡이 매치업이다.

성남의 33세 베테랑 우성용은 올 시즌 화려하게 ‘회춘’하면서 통산 100호골 고지를 밟았고 정규리그 15골로 득점왕을 예약해둔 상태다.

지독한 2년차 슬럼프를 겪은 서울의 ‘스물 한 살 천재’ 박주영은 독일월드컵 이후 장기 슬럼프를 딛고 부활을 알렸다.

서울의 용병 두두는 성남 출신인데 이번 시즌 성남전에서 유난히 강했다. 성남은 이적생 특급용병 이따마르와 네아가의 발끝이 매섭고 ‘돌아온 득점왕’ 모따는 전천후 조커로 대기한다.

올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는 성남이 1승 2무로 우위다.

### 수원-포항: 최강 허리 vs 이동국 복귀

▲수원-포항=수원은 김남일이 FA컵에서 왼쪽 골반 근육을 다쳤고 용병 공격수 실바도 부상을 당해 전력 손실이 심각한 상태다. 그럼에도 허리 진용 만큼은 이견을 불허하는 국내 최강임에 틀림없다. 송종국, 백지훈, 이관우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은 월드컵 출전 꿈을 접어야 했던 ‘비운의 골잡이’ 이동국의 복귀가 중대 변수다. 7개월 만에 컴백골을 뽑은 이동국이 어떤 시점에 투입되느냐, 또는 선발로 나오느냐가 수원 수비진의 총체적인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

올 시즌 양팀 상대 전적에서는 포항이 3전 전승으로 압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9일 오전 시리아 홈스의 칼레드 빈 알 왈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알 카라마(시리아)의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북 현대 선수들과 최강희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북 현대 아시아 챔피언 등극

## 종료 4분전 기적골…알 카라마 꺾고 극적 우승

‘역전의 명수’ 전북 현대가 아시아 클럽축구 정상을 정복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은 9일 오전(한국시간) 시리아 홈스의 칼레드 빈 알 왈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 알 카라마(시리아)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막판까지 두 골차로 뒤져 궁지에 몰리다 후반 42분 삼바 용병 제칼로의 극적인 만회골로 스코어를 1-2로 좁혔다.

지난 1일 전주에서 열린 홈 1차전에서 2-0으로 이긴 전북은 이로써 결승 1,2차전 전적 합계 3-2로 앞서 대망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북은 2002~2003 시즌 시작된 이 대회에서 K-리그 클럽으로는 처음 우승을 차지해 상금 60만달러를 거머쥐었고 다음 달 6대륙 클럽 챔피언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클럽축구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 8강, 4강에서 잇따라 역전 명승부를 연출했던 전북이 다시 한 번 위기에서 짜릿한 드라마를 만들어낸 한 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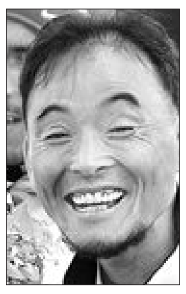
두 골차 여유를 갖고 경기에 나선 전북은 바시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비롯해 4만여 관중이 광적인 성원을 보낸 홈팀의 분위기에 휩쓸려 초반 흐름을 빼앗기면서 고전하기 시작했다.

전북은 후반 9분과 14분 2골을 내리 헌납하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위기에서 빛을 발한 것은 전북이 자랑하는 뒷심이었다.

후반 42분 오른쪽 측면을 세차게 돌파한 김인호는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어렵게 크로스를 올렸다. 전·후반 내내 부진했던 제칼로는 볼이 날아오자 사력을 다해 점프한 뒤 골키퍼 발호우스에 앞서 방아찧기 헤딩슛으로 골문을 열어젖혔고 경기는 그대로 마감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재기 이봉주 인기도 부활



지난 5일 2006 중앙서울마라톤에서 2시간10분49초로 올해 국내선수 최고기록을 세운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6·삼성전자)가 ‘인기 부활’을 실감하고 있다.

생애 34번째 풀코스 완주와 함께 재기를 선언한 이봉주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육상단 전용경기장에서 국내 마라톤 동호회 회원 1천여명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이 행사는 삼성전자 육상단이 마라톤 붐 조성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육상단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행사 참가자를 추려낼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 스포츠 중계

10일(금)

▲제38회 전국양궁 종합선수권대회 결승전(13 : 50·MBC)

▲세계 주니어 배드민턴 개인전 준결승(13 : 50·SBS스포츠)

▲제16회 대륙간컵 야구대회〈한국-쿠바〉(14 : 00·KBSN SPORTS)

▲전국대학배구 3차대회 결승전(14 : 00·KBS2)

▲코리안투어 하나투어-몽베르투어 챔피언십 2R(14 : 10·KBC)

▲프로농구〈동부-모비스〉(18 : 50·Xports), 〈전자랜드-KCC〉(18 : 50·SBS스포츠)

# 이호·김동현 나란히 러시아 데뷔골

러시아 프로축구에서 뛰는 도하 아시안게임 축구대표 이호(22·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김동현(22·루빈 카잔)이 나란히 데뷔골을 작렬했다.

이호는 9일(이하 한국시간) FC 토피도 모스크바와 원정 경기에 선발출전해 전반 45분 프리킥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이호는 딕 아드보카트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따라 제니트로 이적한 이후 처음 득점포를 가동했다.

포르투갈 SC브라가에서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루빈 카잔으로 임대된 ‘한국판 비에리’ 김동현(22)도 이날 시니크 야로슬라블과 경기에서 득점포를 쏘아올렸다. 김동현은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17분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루빈은 5-1 대승을 거둬 5위(11승7무9패)를 달렸다.